

# 해남 일본계 벼 품종 퇴출 나섰다

### 국내육성 새봉황·청품 등 4종 2년간 시범재배 2025년까지 전체 10% 일본계 '제로화' 목표

해남군이 농업분야 탈일본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육천농협과 공동으로 일본계 벼 품종을 대체할 국내육성 우량품종 선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최적의

품종을 선정, 지역에 특화된 최고 품질의 해남 명품쌀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해남군은 앞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종된 우량품종인 새봉황, 청품, 예찬, 수광 등 4종의 벼를 육천면 일대 20ha에 2년간 시범 재배한다. 시범재배는 품종별 비교 전시포를 조성

해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등을 조사하고, 지역특화 우량품종을 선발한다. 향후 재배농가 평가회 및 소비자 반응조사를 실시해 가장 밥맛이 좋은 품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25년까지 일본계 품종 면적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육성된 고품질 우량품종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 해남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9년 기준 해남군에서 재배중인 일본계 벼 품종은 히토메보레, 고사히카리

등 1,80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0%에 달하고 있다. 김기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본계 벼 품종은 병해충과 쓰러짐에 약해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고,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일본계 품종보다 맛있는 국내육성 품종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만큼 전국 최대 벼 재배지역인 해남에서 일본계 품종 면적 제로화를 달성해 농업분야의 탈일본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개 읍면 6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신안군 제공

## 신안 코로나 클린존 '안심식당' 지정 5개 읍면서 '한 방향 식사' 시범 운영 전통시장 임대료도 2개월간 전액 감면

신안군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클린존 '안심식당'을 지정했다. 신안군은 15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개 읍면 6곳을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에서는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를 실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쓴다. 지정 업소는 좌석 수가 줄어든 만큼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군청과 읍·면 직원들이 매주 1회씩 안심식당을 이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일회용 식탁보, 개인 집게,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관내 안심식당은 압해읍 갯벌횃집, 자은면 해송가든, 안좌면 섬마을음식점, 팔금면 돼지촌, 암태면 하나로식당과 산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안심식당 운영에 동참해 준 영업주점에 감사드린다"며 "4월30일까지 신안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판매를 하는 등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도 전통시장 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을 2개월간(3~4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인회와 협의해 장날(3·8일)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 "완도서 해양치유 힐링체험 하세요"

### 노르딕워킹 등 총 15회 진행 관광객·지역민 등 30명 모집

완도군이 '2020 봄 그리고 힐링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봄 프로그램은 4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5회 진행한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해양치유자원(해양기후·해수·해양생물·해양광물)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 활을 돕는 건강증진 활동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노르딕워킹·필라테스·자이로키네시스·요가·명상 등 해안아웃도어 프로그램과 해수와 해양생물을 이용한 해수찜, 커피와 꽃차 시음, 다양한 해양치유 음식 시식



완도군이 노르딕워킹과 요가 등 해양기후를 활용한 '2020 봄 힐링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6월까지 총 15회 진행한다. /완도군 제공

등이 이어진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봄, 여름, 가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체험관을 95회 운영해 총 8,592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입 호강, 눈 호강 힐링하고 갑니다.", "바다를 보는 것만

로도 좋는데 이렇게 노르딕워킹을 하니 자세도 바로잡을 수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5%였으며 향후 참여 의향도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완도군은 설명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선착순 30명으로 관광객, 지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나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지원팀(061-550-5682, 5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최규옥 기자

# 영암 고용위기지역 연말까지 연장

### 훈련생계비 확대 등 지원방안 추진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지난해 1년이 추가 연장돼 오는 5월 31

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이 일부 증가했지만, 과거 호황기의 조선경기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영암군은 이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서를 제출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최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지원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재연장됨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완도 주민 공동체 행복마을 4곳 선정

### 보급자리 개선사업 등 진행

완도군이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희망 미래완도 행복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군은 최근 행복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모사업 대상 4곳을 선정했다. 소가용리 새마을회 '마을주민 하나 되기', 노화서리 새마을회 '서리마을 해양치유사업', 고금 청년회 '사랑의 보급자리 개선 사업', 청산 달팽이 작은마을학교 '실버하트 나눔 프로그램' 등이다. 선정 단계에는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완도·최규옥 기자

완도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해 마을속원사업 해결, 마을 전문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진행했다. 2차 행복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은 오는 25일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마을로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15일 "공동체 사업을 통해 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완도 5년 연속 성인문해교육 공모 선정

완도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주최하는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8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완도군은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전국 및 전남도 시화전에서 8개 작품이 입상해 국회 교육위원회장상, 전남도지사상, 전남도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남성 16명, 여성 265명 등 총 281명

을 교육을 받았고, 그중 9명이 초등학교 인정서를 수여받았다. 군 관계자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성인문해교육 선도 지자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올해는 300여명이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보된 국비를 통해 작년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 목포 섬 지역 LP가스 해상운송 지원

목포시는 최근 도서민을 위한 생활에너지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생활연료로 사용하는 LP가스는 개별구매 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배송료가 높고, 운송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목포시LP가스판매협동조합과 협의해도

서지역도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연료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화물선을 임대해 일괄 공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연료 해상운송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절감되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강진 자원봉사단체 '면 마스크' 재능기부

강진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생활개선회 회원 60여명이 면 마스크 제작 재능기부에 나섰다. 강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능관리기금을 운용키로 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의 재능기부로 면 마스크 1만개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마스크는 세탁할 수 있는 면 소재 원단으로 만들어 위생적이며,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정전기 필터를 넣고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는 "한 땀 한땀 정성스레 만든 면 마스크가 소외계층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